

축산농가 규모화 바람 거세다

광주·전남 가축사육 동향

가축 사육수·사육농 감소

농가당 사육수 매년 증가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마릿수가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가구당 사육두수는 증가세를 보여 축산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최근 5년간(2009년 6월~2014년 6월) 광주·전남 지역 가축사육동향 자료에 따르면 증가세를 이어왔던 한·육우, 돼지, 닭 등의 사육가축 마릿수가 최근 감소세로 전환하고, 사육 가

구수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육우의 경우 48만1000마리로 5년 전보다 11.1%(4만8000마리)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국내산 소고기 소비 확대와 소 이력추적제 시행 등으로 한·육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의 숫자를 줄인 결과다.

젖소는 사육두수가 감소해 5년전 3만1832마리였던 것이 올해는 2900마리(9.1%)가 감소해 2만9000마리였다. 돼지 역시 2009년 78만5000마리였던 것이 지난해 103만8000마리로 정점에 올랐다 올해는 99만6000마리로 100만 마리선이 무너

지며 하향세로 돌아섰다. 닭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요 대체로 소비가 증가하고 계란 값이 상승하면서 꾸준히 늘어, 올해 2124만1000마리로 5년전보다 192만3000마리(10.0%)가 늘어난 상태이다.

하지만 사육 가축 숫자의 증감과는 별도로 가축사육 가구수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축산농가당 기르는 가축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축별로는 한·육우의 경우 2만1000가구로 5년 전보다 무려 38.4%(1만3000가구)나 줄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사육 두수는 12.4 마리에서 22.4마리로 80.5%(10마리)가 증가했다. 돼지가 881가구로 27.7%(338가구), 젖

소가 347가구로 21.3%(94가구), 닭이 354가구로 6.3%(24가구) 등 모두 감소했다.

가축사육 가구수 감소에 대해 통계청은 소값 하락, 사료값 상승 등으로 소규모 영세농가는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또 사육규모 20마리 미만 농가의 경우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폐업처분을 하는 등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전남도 축산농 관계자는 “축산 가구의 감소는 부업형태의 영세농가의 폐업과 노령화로 인한 자진포기로 인한 것”이라며 “현재의 조건에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현과 축산 농가의 규모화·조직화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법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지위 인정

광주공장 600여명도 혜택보나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장근 부장판사)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하고, 고용 기간에 대한 임금이 부족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68명 중 345명은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서, 그리고 123명은 기아차

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청구에서 각각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기아차 광주공장의 188명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현재 광주공장엔 600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일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존재하지만,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분회’라는 조직으로 기아차 노조에 포함돼 조합원으로 활동중이다. 박지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부지회장은 “법원의 판결은 공정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요구안이 있는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유리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 화장·미용산업 지역 참여기업 모집

광주테크노파크가 CoBe(Cosmetic & Beauty, 화장미용) 산업의 지역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CoBe 산업은 광주의 광기술과 전남의 바이오기술을 융·복합한 행복생활권 전통산업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지역 전통산업으로 지정됐다. 광주시와 장성군을 묶은 행복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 광산구, 장성군이 3년간 모두 17억2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7억5800만원을 부담, 총 24억6000만원의 사

업비가 책정됐다.

신청조건은 광주시 광산구 및 장성군에 있는 CoBe 관련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고, 점수마감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상된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최대 4000만원의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비R&D)까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062-970-0274).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0일 광주시 북구 금곡마을에서 열린 ‘식사랑 농사랑’ 체험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인절미 만들기를 체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도시가족 농촌 식문화 체험행사

“농촌아 고마워, 도시아 놀러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지난 20일 주말 체험형 농장인 ‘도시가족 주말농부 농촌 식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11월까지 월 2회 이상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

는 도시가족은 광주시청홈페이지(www.gwangju.go.kr) 또는 식사랑농사랑운동 홈페이지(www.식사랑농사랑.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버스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광주시청 정문 앞에서 출발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4.11 (-1.53)

▲ 금리 2.33% (-0.01)

▲ 코스닥 577.48 (-2.94)

▲ 환율 1042.60원(+2.70)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4 부산 패션위크-콜핑·비티알 패션쇼’에서 콜핑 박만영 회장(앞쪽 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콜핑 제공>

콜핑-비티알 ‘부산 패션위크’ 성황리 열려

(주)콜핑과 (주)비티알이 참여하는 ‘2014 부산 패션위크’ 행사가 25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다.

콜핑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2014 콜핑, 비티알 패션쇼’를 열고 올해 신상품 아웃도어 의류와 복유립식 실용적 합리주의를 표방하며 새로 론칭한 콜프웨어 비티알(BTR)을 선보였다. 콜핑 전속모델인 배우 임수향이 패션쇼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비티알 전속모델인 걸그룹 ‘걸스데이’는 비티알 부스에서 팬사인회를 열어 구름 관중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 박만영 콜핑 회장은 “히말라야에서도 올레길, 둘레길도 콜핑이면 충분하다”며 “새로 출시하는 콜

프웨어 브랜드 BTR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콜핑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회에 걸쳐 전시회에 참가하며, 신제품과 신기술, 트렌트 등 다양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였다.

1983년 순수 국내 브랜드로 설립된 콜핑은 현재 전국 360여개 매장과 미주 및 중국에 8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기 등반대회 및 세계 월드컵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공식 후원업체로서 대한민국 산악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매출액은 2500억을 넘어설 예정이다. 2018년까지 글로벌 아웃도어 톱 5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오늘 영패션 전문관 오픈

28개 새 브랜드 입점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6일 의류, 신발, 액세서리, IT제품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특화 상품 전문매장인 영패션 전문관을 9층에 그랜드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대적 리뉴얼 공사를 거쳐 탄생한 영패션 전문관에서는 기존에 만날 수 없던 총 28개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각적인 새로운 브랜드가 대거 입점한다. 소녀 컨셉의 영패션 브랜드 ‘쥬시쥬디’, 미국 인기 스트리트 힙합 브랜드 ‘어드바이저리’ 파스텔 컬러를 주로 사용한 니트, 카디건, 블라우스 아이템의 ‘피그먼트’ 등이 새로 선을 보인다. 가방, 액세서리 중심의 브랜드 ‘BAK’, 유니크하고 세련된 감각 고객을 위한 SPA 브랜드 ‘아클림’

도 들어선다. 스포츠 브랜드로는 ‘스케처스’, ‘VANS’, ‘나이키NSW’가, 전개 주얼 브랜드로 ‘플렉진’, ‘누디진’이 각각 입점한다. IT 소품과 아이디어 제품 등을 직접 시연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가전 매장 ‘타가렛’, 잡화 브랜드 ‘비야모노’, ‘샘소나이트 레드’ 등도 볼 수 있다.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26~28일 12시까지 선착순 방문 고객 200명에게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 26일 오후 3시~5시에는 비비이 공연, 27일 오후 2시~5시에는 패션쇼가 펼쳐진다. 28일까지 당일 구매 고객들은 네일케어 서비스를 받거나 헤나 타투 체험을 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4 실전창업스쿨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중소기업청 국비지원 창업교육인 “2014 실전창업스쿨”은 자신의 능력과 감성을 창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여성여러분! 지금 신청하세요.

강좌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마감	교육장소
ICT를 활용한 전통의상소품 제작 창업교육	14.10.1~14.11.7 (25회, 총 100시간)	14:00~18:00 (4시간/일)	10. 8(수)	국제직업전문학교(신세계점)
ICT를 활용한 캘리그래피 창업교육	14.10.1~14.11.24 (36회, 총 109시간)	18:00~21:00 (3시간/일)	10. 8(수)	국제직업전문학교(조대점)
ICT를 활용한 LED아트몰러워 제작 창업교육	14.10.20~14.11.20 (13회, 총 76시간)	12:00~18:00 (6시간/일)	10.27(월)	LED아트몰러워 평생교육원 외 (광주역 앞)

교육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교육인원 : 각 과정별 25명
교육내용 : 각 과정별 실기교육
 • 창업이론 교육 및 창업 CEO 특강
 • 해외판로 및 마케팅 강의
 • 블로그 및 SNS 활용 교육

교육비 : 전액무료
 • 재료비(개인부담) 10만원(광주은행 053-107-393053 예금주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
수강신청 : (온라인접수) <http://www.wbiz.or.kr>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회원가입 후 실전창업스쿨 신청
특전 : 교육 수료 시 수료증 교부
 • 창업전문가 컨설팅 기회 제공

상담전화 : 062-527-161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센터
 • 062-352-0114 전통의상소품 제작교육
 • 062-223-6123 캘리그래피 창업교육
 • 062-575-6469 LED아트몰러워 제작교육

주관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센터 주최 중소기업청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등유대비 68% 절감
 전기 54% 절감
 도시가스 42% 절감

고정비용을 줄여라!!

지역 특판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 히트펌프보일러

남방 방전문점 대표번호 1644-8983